

제가 경험한 Bottom-up 시스템의 장점



저는 한양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에서 16년째 근무하고 있는 박희진 교수입니다. 저는 교수로 재직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과학회 활동(컴퓨터이론연구회 위원장, 한국정보올림피아드 위원장, 상임이사, 이사, 논문지 편집위원)을 해왔고 한양대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보직(소프트웨어 융합원장, 소프트웨어 전공 주임)을 수행하여 현장 경험을 쌓았습니다. 저는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과학회를 한 층 더 발전시키고자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회 내에서 여러 위원장을 맡아서 활동하고 한양대에서 보직을 맡아서 활동하는 동안 상향식(bottom-up) 운영 방식의 장점을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의 의견(특히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듣고 그 분들과 함께 고민하면 제가 혼자 고민해서 결정할 때보다 훨씬 더 훌륭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학회는 다수의 회원들이 참여하는 bottom-up 방식보다는 소수의 회장단이 관리하는 top-down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학회를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는 좋지만 열정과 아이디어가 넘치는 회원님(특히 젊은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서 학회를 발전시키기에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정보과학회에 실망한 어떤 회원 분들은 정보과학회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회에서 더 열심히 활동하시거나 독자적으로 학회를 만들어 왕성한 활동을 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차기회장에 당선되면 하루빨리 정보과학회를 개혁하여 이런 훌륭한 분들도 우리 학회로 다시 돌아오셔서 학회 발전에 기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적인 제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과학회 컴퓨터이론연구회 위원장(2016-현재)
- 정보과학회 한국정보올림피아드 위원장(2018-현재) 및 위원(2010-현재)
- 정보과학회 상임이사(2016), 이사(2014, 2017-현재) 및 논문지 편집위원(2011-현재)
-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원 원장(2016-2018): 학생 3000(명/년) 기초교육 총괄 담당
-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전공 전공주임(2013) 및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교수(2003-현재)
-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BK연구교수(2003)
-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학사(1994), 석사(1996), 박사(2001))